

문화

“국제캠 멀관 앞에서 좌판 깔고 아침과일 팔아 보고 싶어”

과일가게 ‘청춘과수원’ 사장 이상명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와 이어진 작은 골목 ‘경희마을’에도 어느덧 봄이 들어섰다. 겨우 내 얼어붙었던 골목은 이제 개울물 흐르듯 활기를 띠고 있었다. 골목 별 잘 드는 곳에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진달래처럼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게가 있다. 하얀 벽면이 빛을 받아 더욱 반짝이는 과일가게 ‘청춘 과수원’이다. ‘청춘 과수원’의 사장인 이상명(환경조경디자인인 2010) 군을 만났다.

‘청춘 과수원’은 딸기,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키위, 청포도, 사과 등 여러 과일과 그 과일을 먹기 편하게 담아놓은 컵과일, 그리고 직접 만든 생과일주스와 따뜻한 과일청 차를 파는 가게다. 지난해 11월 중순에 문을 열었지만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방향이 되는 바람에 요즘에서야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군은 지난해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경희마을’에 비어있는 점포를 보고 과일가게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학생들이 과일을 사려면 주변 대형마트까지 가야하는데 과일이 가깝지도 않고 소량으로 사기도 어려운데다가 비싼 가격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껴왔다”며 “그러던 차에 매장 임대문의와 보고 아직 젊으니 경험도 해볼 겸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품질의 과일을 먹게 해주고 싶어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오랜 고민 않고 덜컥 계약은 했지만, 개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는 “단순하게 시장에 가 과일을 사온 뒤 매대에 늘어놓거나 갈아서 팔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과일을 납품받는 일부터 쉬운 일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청춘 과수원’에서 팔리는 과일은 이 군이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전국에 있는 과일 중 40% 이상을 유통하는 서울시 송파구의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가져온다. 가락시장에서는 시간당 몇 백 개의 상자를 옮겨야 하는 일이 힘들다 보니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아 일년 정도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물건을 납품해준다. 이 군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끈기가 없다’며 자신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매일 밤 가락시장에 가서 열심히 부탁하며 ‘과일을 달라’는 때 아닌 때를 쓰다 보니 지금은 좋은 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가락시장 이야기를 꺼낸 김에 그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과일의 가격이 왜 날마다 다르냐’는 질문에 답을 줬다. 그는 “과일은 생물이니 하루만 지나도 상태나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에 이뤄지는 경매를 통해 시가가 정해진다”며 “경매에서 출하량 대비 수요가 적으면 싸지고 많으면 비싸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군은 매일 직접 가서 맛을 보고 학생들이 구매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가져오고 있으니 학생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것은 매장을 꾸미는 일이었다. 아르바이트 했던 돈과 장학금을 모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기에 내부 인테리어부터 전기, 수도공사를 전문 업체에 맡길 돈은 없었다. 그래서 이 군은 같이 디자인을 공부했던 친한 친구에게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디자인 컨셉트만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직접 매장을 꾸몄다. 이 군은 “한 장에 400원 하는 벽돌을 사와 일일이 손으로 붙이는 것을 끝내고 천장에 올라 등을 깔고 전기선을 연결시키면서

‘나는 단지 과일을 팔고 싶었던 것뿐이었는 데’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전에는 자신이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나가는 재미에 어렵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친구들이 가게에 찾아오면 ‘저 벽돌 내가 붙인 거다’라고 자랑하고 가게 구석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놓고 간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이 군은 ‘청춘 과수원’에서 하고 싶은 몇 가지 기획이 있다고 했다. 배달서비스를 해보고 싶고 학교 행사 때 납품을 해보고 싶다는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해보고 싶은 기획은 국제캠 멀티미디어관(멀관) 앞에서 오전 9시쯤에 잠시 동안 좌판을 깔고 아침과일을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일은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맛이 좋은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과일을 갖고 오면 오전 7시쯤 되고, 매장 열 준비를 마치면 9시가 되니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10시에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밥을 못 먹고 등교한 친구들이 아침대용으로 신선한 과일을 사먹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춘 과수원’이라는 이름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내 나이가 27인데 애매한 나이인 것 같다”며 “어른들은 한창 젊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화석 소리를 듣는 나이이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이 군은 “취업을 안 하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을 것처럼 사회적 알람이 시끄럽게 울리는 데, 듣기 싫어서 아무리 내 알람을 꺼 봐도 옆에서 울려대니 들을 수밖에 없다”며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그 알람 앞에서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을 가진 ‘청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 가게의 이름을 ‘청춘 과수원’이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직 자신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앞의 두 글자를 따서 줄임말로 만들면 과일가게를 뜻하는 ‘청과’가 된다”고.

따뜻한 봄볕과 달리 아직은 바람이 찬 이른 봄이다. 그래서인지 청춘들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요즘이다. 달큰한 딸기냄새와 함께 “몸은 무척 고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이 군과 그를 닮은 ‘청춘 과수원’이 더 많은 청춘들에게 완전한 봄을 맛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밥을 못 먹고 등교한 친구들이 아침대용으로 신선한 과일을 사먹을 수 있게 하고 싶다”



2016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일정 안내

구분	내용	일정
내국인 대상 신(편)입학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6.04.11(월) 10:00 ~ 2016.04.20(수) 17:00 까지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2016.04.13(수)은 공휴일임
	전형 (면접, 실기평가 등)	2016.05.21(토) 10:00
	합격자 발표	2016.06.17(금) 13: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6.07.01(금) ~ 2016.07.07(목) 16:00 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상 신입학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6.03.28(월) ~ 2016.04.29(금) 17:00 까지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2016.04.13(수)은 공휴일임
	합격자 발표	2016.06.10(금) 13: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6.07.01(금) ~ 2016.07.07(목) 16:00 까지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 공지사항 또는 ‘입학’ 메뉴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